

근대계몽기 잡지의 독자 전략과 역사 전기 서사물 — ‘을지문덕’의 서사화를 중심으로*

전은경**

요약

근대계몽기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학회활동이 이루어지고 학회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학회들이 설립되는데, 이 지역 학회들은 학회지를 통해서 애국과 계몽을 실천하기 위해 문예면을 활용하였다. 그 가운데 역사 전기 서사물은 지역 독자층에게 애국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몽 문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역사 전기 서사물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 학회지의 특징과 독자층 전략에 따라 변이를 보여준다. 특히 『서우』는 좀 더 한문에 익숙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호남학보』는 상대적으로 한문에 덜 익숙한 유소년층을 독자층으로 삼았다.

따라서 역사 전기 서사물은 근대계몽기 각 지역별 청년들과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역사 전기 서사물은 이전 역사서가 근대문학으로 이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전근대적인 영웅의식을 담은 역사서를 지금, 여기의 현재성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근대의 ‘개인’을 발견하며 청년들과 유소년층들을 계몽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유소년층들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역사는 특별한 영웅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 가는 것임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서로부터 근대문학의 새로운 역사 문학으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 지역 학회지에 실린 다양한 역사 전기 서사물들이 존재함으로써, 역사 전기

* 부족한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한문 해석의 오류를 잡아주시는 등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 경일대학교 후지오네칼리지 교양학부 조교수

서사물들은 그 변이의 과정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이의 과정은 지역의 각 학회지가 상정한 독자층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독자층, 즉 청년 독자층과 청소년 독자층을 발견해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문예를 창출하고자 하는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근대문학은 서서히 태동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근대계몽기, 『서우』, 『호남학보』, 역사 전기 서사물, 을지문덕, 독자층, 독자 전략, 역사서, 근대문학

목차

- 1 서론
2. 근대계몽기 잡지의 독자 전략과 서사 문예
3. 역사의 서사화와 「을지문덕전」의 활용
 - 1) 독자 전략에 따른 서사 활용
 - 2) 독자 전략에 따른 문체적 변이
4. 근대계몽기 역사전기 서사물이 근대문학에 끼친 영향
5. 결론

1. 서론

소위 개화기로 불리는 1900년대에는 반외세를 주장하며 애국계몽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 중 “1905년 이후 지식인을 중심으로 출판운동·국문운동·교육운동·학회운동 등의 문화운동을 통한 개화자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독자를 교양시키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설문학도 발전”하게 된다.¹⁾ 이 시기 애국계몽 운동과 연계된 서사문학은 “과거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제재로 한 역사전기문학, 시사적 성격을 띤 단편 토론체 문학, 그리고 외국의 역사서 및 전기

1)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저,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2006, 71면.

의 번역”을 들 수 있다.²⁾

이러한 애국계몽 운동과 연관한 서사물들은 학회 운동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 전기 서사물이나 토론체 문학, 외국 역사물의 번역 및 소개가 근대계몽기의 다양한 학회지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단행본을 통해서 역사 전기 문학들이 많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학회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 전기 서사물들이 많이 출현했다.

이 학회지들 가운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지들 역시 ‘애국’과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서사 문예적 부분을 담당했다. 지역 학회지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발간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 출신들이 모여 학회를 구성하고 학회지를 발행한 것이었다. 당대 지역 학회지로는 평안남북도,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우』(1906.12~1908.5), 서우학회의 지역과 함경도 지역까지 통합한 『서북학회월보』(1908.6~1910.7), 전라남북도 지역 중심의 『호남학보』(1908.6~1909.3), 서울과 경기지역, 충청남북도 지역 중심의 『기호흥학회월보』(1908.8~1909.7), 경상남북도 지역 중심의 『교남교육회잡지』(1909.4~1910.5) 등이 있다. 강원도 지역의 관동학회는 따로 학회지를 출판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역 학회지는 총 5개였다.

지역 학회지 가운데 역사 전기 서사물은 『서우』와 『서북학회월보』, 『호남학보』에 주로 실려 있다. 『기호흥학회월보』에도 실려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인물보다는 전설 등에 맞추어 있고, 서사물보다는 한시 등 시가류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교남교육회잡지』에는 역사 전기물이 전혀 실리고 있지 않다. 지역 학회지라 하더라도 학회지별로 달라지는 것은 각 학회지의 편집 특징이나 전략에 따라 문예면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전기 서사물들이 각 학회지의 편집 전략 등과

2) 변영로, 『한국근·현대문학사』, 명문당, 1991, 33면.

맞물리면서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 학회지마다 주요 독자층이 다르고, 또 그 독자층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지역 학회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학회를 구성하면서도 지회는 해당 지역에 두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계몽 운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각 지역 학회지의 편집 특징과 독자 전략³⁾에 따라 문예면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서사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역사 전기 서사물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각 역사 전기 서사물이 학회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독자 전략과의 상관관계 역시 미시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역사 전기 서사물은 전통적으로 전(傳)의 형태로 이어져 왔거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의 역사서로서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전통 전의 양식이나 역사서들이 어떻게 근대적 서사 양식 안으로 포섭되고 확장되어 들어오게 되는지 그 전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 전의 양식이나 역사서로부터 근대계몽기의 역사 전기물로, 또 여기에 더 나아가 새로운 단편서사물로 확장되는지 그 과정을 미세하게 짚어봄으로써 ‘애국’과 ‘계몽’의 키워드 안에서 새로운 문학의 태동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독본류의 교과서들과 이 역사 전기 서사물이 어떻게 연관되고 또 차별성을 띠게 되는지도 이러한 미시적 과정 속에서 천착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역 학회지에 실린 역사 전기 서사물을 중심으로 일반 역사서로부터 근대의 역사 전기 서사 혹은 소설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 전기 서사물이 주로 실렸던 『서우』와 『호남학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두 잡지

3)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독자 전략’은 각 학회지의 편집자가 상정하고 기대하는 독자층을 대상으로, 이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해 활용한 전략과 방법을 의미한다. 즉 ‘독자 전략’은 학회가 상정한 독자층에게 편집자가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그 독자층을 계몽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지 그 전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두에 실린 ‘을지문덕’을 중심으로 이 변화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천착해 보고자 한다.⁴⁾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전소설의 양식이었던 ‘전(傳)’ 양식이 어떻게 근대적 인식을 수렴하여 새롭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이 작가의 근대적 세계관과 어우러져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 학회지가 독자 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서사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당대 현실을 체화하며 고민하던 지식인들이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서사물에 담아내고 있는지 밝혀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사실 이러한 근대계몽기에 등장한 학회지 등에 소개된 역사 전기 서사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문학사 등에서 간단하게 언급될 뿐, 역사 전기 서사물에 대한 연구나 이러한 서사물의 변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체로 단행본으로 출판된 신채호나 박은식의 역사 전기 소설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가운데 지역 학회지에 실린 서사류에 대한 연구들 중 주목해볼 논의를 살펴보면, 『서우』에 실린 역사 전기 서사물 및 서사체에 대한 연구로 류양선,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984. 5; 이경선, 「박은식의 역사·전기소설」, 『동아시아문화연구』 8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5;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의식 지향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문한별, 「근대전환기 학회지의 서사체 투영 양상」 『서우』, 『서북학회월보』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2009.9;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회, 2009.10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호남학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학 이기의 사상이나 글쓰기, 문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주목할 논의로는 조상우, 「해학 이기의 계몽사상과 해학적 글쓰기」,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2007; 홍인숙·정출현, 「『대한자강회월보』의 운동성과 지향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김진권, 「근대계몽기 해학 이기의 한문 인식」,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 정충권, 「전통지식인이 바라본 근대계몽기의 교육과 문학·해학 이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등을 들 수 있다.

2. 근대계몽기 잡지의 독자 전략과 서사 문예

근대계몽기에는 여러 학회지가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을 토대로 한 학회지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이들 지역 학회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각 지역 출신들이 모여서 학회 활동과 학회지를 발간했기 때문에 ‘지역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울 지역에 모인 각 지역 출신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의 독자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출신 지역의 독자층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계몽시키고자 그에 맞는 글들을 싣고자 했다. 그 가운데 선택된 것이 문예면 이었고, 문예면 중에서도 서사류에서는 역사 전기 서사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가운데 근대계몽기 지역 잡지라 할 수 있는 학회지 중 을지문덕을 서사화하고 있는 잡지는 『서우』와 『호남학보』 두 학회지였다. 『기호흥학회월보』에서도 을지문덕과 관련한 내용이 〈잡조〉에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무애생 즉 신채호의 저서 『을지문덕』에 대한 평으로서 실제 을지문덕 자체에 대한 서사화로 보기는 어렵다.⁵⁾ 이렇게 보면, 지역 학회지 내에서 을지문덕을 서사화한 문예 글은 『서우』에 2편, 『호남학보』에 1편이다.

〈표-1〉 『서우』와 『호남학보』에 게재된 문예 관련 글⁶⁾

분류	세부사항	『서우』	『호남학보』
서사류	대화체(문답체)	3	3
	몽유	1	

5) 매당거사(邁堂居士)가 쓴 이 글은 신채호의 『을지문덕』에 대한 서평이자 추천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한문체였기에 사실상 근대적 의미의 역사의 서사화라고 보기는 어렵다.(邁堂居士, 〈藝苑隨錄/雜俎〉 『大東四千載第一偉人 「乙支文德」 敍』,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1908.8, 39면)

6) 위의 표는 전은경, 「근대계몽기 지역 학회지와 지역 문학의 근대적 태동」, 『어문학』 146, 한국어문학회, 2019. 12, 241면 〈표-6〉을 부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서사	3	
	역사 전기	35	50
	우화	2	
	전설	5	
시 가 류	한시 계열(문장)	25	
	한글시가(가사/민요)	3	1
총계		77 (전체 수록 글 338개 중 19.8%)	54 (전체 수록 글 226개 중 23.9%)

〈표-1〉은 『서우』와 『호남학보』에 실린 문예글의 분류표이다. 근대계몽기 지역 학회지에서 문예면은 20% 전후를 차지하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 중 『서우』는 역사 전기 서사물과 한시 계열의 시가류가 전체 문예류의 약 77.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역사 전기 서사류와 시가류를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호남학보』는 시가류가 1편밖에 없고, 대부분의 문예가 역사 전기 서사물이었다. 『호남학보』에서는 역사 전기 서사물이 전체 문예 글의 약 92.6%를 차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예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표-2〉 『서우』와 『호남학보』에 게재된 역사 전기물의 문체 분류⁷⁾

문체	상세구분	서우의 역사 전기물	호남학보의 역사 전기물
한 문	한문	2	
	현토한문	2	
	한문+현토한문		
	현토한문+구절	3	

7) 문체 분류는 임상석의 논의에서 '한문 구절체', '한문 구절체', 한문 단어체로 구분한 것과, 김재영의 논의에서 '구절형 한문해체문', '단어형 한문해체문' 등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김재영, 『『대한민보』의 문체 상황과 독자층에 대한 연구』, 『한국 근대문학과 신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구 절 형	구절형 국한문	17	
	구절형+현토한문	1	
	구절형+한문		
	구절형+단어형		
단 어 형	단어형 국한문	6	50
	단어형+구절형	4	
	단어형+현토한문		
	단어형+한문		
	총계	35	50

『서우』에 실렸던 전체 글은 총 388개였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문체 유형은 단어형 국한문체로 173개였다. 이를 대분류로 한문체, 구절형, 단어형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단어형 국한문체는 총 51.8%를 차지했다. 그에 반해 구절형 국한문체는 21.1% 정도였다.⁸⁾ 즉 『서우』 전체 글 안에서 구절형 국한문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분류상 한문체와 구절형 국한문체의 비율은 전체 문예 글의 약 71.4%를 차지했다. 즉 문예면은 대부분 한문체나 구절형 국한문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단어형 국한문체가 전체 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면에 대해서는 한문체나 구절형 국한문체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다시 말해 문예면의 집중 대상은 한문 또는 구절형 국한문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독자였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서우』에서 역사 전기 서사물은 단어형 국한문체가 아니라 구절형 국한문체를 사용함으로써, 그 독자층이 기존 유학을 공부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학보』에 실렸던 전체 글은 총 226개였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문체

8) 『서우』와 『호남학보』에 실린 전체 글의 문체별 분류는 전은경, 『근대개항기 지역 학회지와 지역 문학의 근대적 태동』, 앞의 글, 237면 참조.

유형은 『서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단어형 국한문체였다. 전체 글 가운데 104개가 단어형 국한문체였으며, 이를 대분류로 한문체, 구절형, 단어형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단어형 국한문체가 약 48.2%, 한문체가 약 41.2%로 나타난다. 이는 단어형 국한문체 양식과 한문체 양식이 매우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포는 『서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호남학보』에서는 한문체와 단어형 국한문체가 모두 비슷하게 많이 등장한다. 이 두 문체 양식이 절반씩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중 『호남학보』의 역사 전기물의 문체는 50편 모두 단어형 국한문체였다. 『호남학보』 전체 글 가운데에서 역사 전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1%로, 단어형 국한문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호남학보』는 한문체를 위한 독자층과 단어형 국한문체를 위한 독자층을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전기 서사물의 경우, 모두 단어형 국한문체였다면, 이 역사 전기 서사물의 독자층은 단어형 국한문체를 활용하는 독자층 즉 『서우』의 역사 전기 서사물을 탐독하는 독자층보다 조금 더 어리거나 한문에 덜 익숙한 독자층일 확률이 높다.⁹⁾

이렇게 볼 때, 『서우』의 문예면의 전략과 『호남학보』의 문예면의 전략은 뚜렷이 구분된다. 『서우』가 서사류에서는 역사 전기 서사물을, 시가류에서는 한시 계열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호남학보』는 시가류는 없이 서사류에서 역사 전기 서사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서우』의 역사 전기 서사물은 구절형 국한문체를 활용하여 좀 더 한문에 익숙한 청년들을 제도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었음을 짐작해 보게 한다. 반면 『호남학보』의 역사 전기 서사물은 전략적으로 단어형 국한문체로 모두 실어, 상대적으로 한문에 덜 익숙한 유소년 독자층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¹⁰⁾

9) 실제로 『호남학보』는 독자를 구분하여, 각 독자층에 맞게 글을 구성하고 있었다. 한문체를 위한 독자층, 단어형 국한문체를 위한 독자층, 또 한글체를 위한 여성 독자층 등 구분하여 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각 학회지는 자신의 출신지인 지역적 특성과 또 그 지역에서 대상 독자로 상정한 독자층을 겨냥하여 다양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는 지역 독자층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한 고민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이 독자층들을 위한 전략으로서 다양한 서사적 장치와 변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사적 변이는 새로운 근대문학을 추동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3. 역사의 서사화와 「을지문덕전」의 활용

앞서 설명한 대로 역사 전기 서사물을 가장 많이 읽고 있었던 두 학회지, 즉 『서우』와 『호남학보』에서 ‘을지문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형하여 서사화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¹¹⁾ 『서우』에서는 〈인물고〉의 표제 아래 총 12명의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후 『서북학회월보』로 확대 재편되었을 때는 〈인물고〉에 총 15명의 인물이 실리고 있다.¹²⁾ 따라서 〈인물고〉는 『서우』와 『서북학회월보』에서 서사문

10) 『서우』가 발간된 시기와 『호남학보』가 발간된 시기는 1년 반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문체 차이가 시기적 차이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서우학회와 한북학회가 통합되어 서북학회가 되면서 발간된 『서북학회월보』는 『호남학보』의 발간시기와 겹치는데, 『서북학회월보』에 실렸던 〈인물고〉의 경우에도 모두 구절형 국한문체였다. 이로 보아, 『서우』와 『서북학회월보』에 실렸던 〈인물고〉는 좀 더 한문체에 익숙한 독자층을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여 실었음을 알 수 있다.

11) 같은 을지문덕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좀 더 한문에 익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읽을거리와, 유소년층을 위한 읽을거리로 실리고 있었음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는 어떤 독자층을 학회지의 주된 독자로 상정하고 교육시키고자 했는지에 따라서 변이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서우』의 〈인물고〉에 실린 역사적 인물 소개가 『서북학회월보』의 수보다 적은 이유는 『서우』의 경우, 여러 편으로 연재하여 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유신전』의 경우, 4호부터 8호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예면을 주요하게 담당했던 표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남학보』에서는 <명인언행>이라는 표제를 두고 총 50명의 역사 전기 서사물을 싣고 있다. <명인언행>은 창간호부터 마지막호인 9호까지 매호마다 꾸준히 연재되기도 했다. 그만큼 역사 전기 서사물이 『호남학보』에서 문예면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잡지 모두 을지문덕의 전기물을 간략하게 싣고 있는데, 『서우』는 2호(1907.1.1.)에, 『호남학보』는 창간호(1908.6.25.)에 이를 싣고 있다. 『서우』의 경우 창간호(1906.12.1.)에는 고구려 역사 및 인물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호인 2호에서 을지문덕이 등장하고 있기에, 사실상 두 잡지 모두 역사 전기 인물 중 가장 첫 번째로 을지문덕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을지문덕을 소재로 하여 역사 전기 서사물을 싣고 있다고 하더라도 잡지의 성향과 독자 전략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기저의 참고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삼국사기』와 비교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은 『서우』의 「을지문덕전」, 『호남학보』의 「을지문덕」, 『삼국사기』¹³⁾에 을지문덕 관련 이야기를 싣고 있는 제20권 영양왕편과 제44권 을지문덕편을 서로 비교 대조한 표이다.¹⁴⁾

『서우』 「乙支文德傳」 한글번역	『호남학보』 「乙支文德」 한글번역	『삼국사기』 20권 영양왕편, 44권 을지문덕편
×	홍양호의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에서 말하길, 고려대신 을지문덕은 평양인이라.	×
을지문덕은 평양군 석다산(石多山)의 사람이니	×	×

13) 『삼국사기』는 한국사사료연구소의 『삼국사기』(표점 교감본, 허성도 역, 한국 지식콘텐츠 사이트, <http://www.krpia.co.kr>)에서 인용함.

14) 이 중 『서우』의 「을지문덕전」과 『삼국사기』에 대한 비교는 전은경의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화 과정」(『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12, 26-28면)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p>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있으니</p>	<p>×</p>	<p>資沈鷲有智數(제44권 을지문덕편)</p>
<p>고구려 영양왕조의 대신이라.</p>	<p>×</p>	<p>×</p>
<p>지나 수양제 대업 8년에 고구려를 치러 할 적에, 24군을 좌우도로 나누어 나오니 무릇 일백십삼만 삼천팔백 인인데 號를 이백만이라 하고 饋輸者가 그 갑절이라.</p>	<p>누차 수(隋)의 변경을 정벌하였더니 거슬러 올라가 천이백구십오년(1295년) 전에 수 황제 양광(楊廣)이 병사 일백십삼만 삼천팔백인을 발하여 부르기를 이백만이오, 군량 및 급료(糧餉)와 병기를 큰 규모로 짐이나 사람을 실어나르는 자(饋輸者)가 또 백여만이라.</p>	<p>凡一百隋開皇(大業)1490)中, 楊帝下詔征高句麗. (제44권 을지문덕편) 一百十三萬三千八百人, 號二百萬. 其餽輸者倍之. (제20권 영양왕편)</p>
<p>좌익위 대장군 우문술(宇文述)은 부여로 출동하고,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于中文)은 낙랑으로 출동하고, 아홉 군대와 더불어 압록강에서 모이도록 하고 또 대장군 내호아(來護兒)는 강회(江淮)에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에 떠서(浮海) 수륙병진(물과 육지로 쳐들어 옴)하고 공부상서 우문개(宇文愷)와 소부감 하조(何稠) 등은 요동에서 부교를 만들어 요동성을 포위하고(進圍)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에 출하고 좌익위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출하여 제군이 압록강(鴨綠江) 서쪽에 모일새,</p>	<p>9도로 나누어 도적이 침범해 오니(來寇내구) 정기(旌旗 : 정(旌)과 기(旗)를 아울러 이르는 말)가 구백육십리에 운항하고 또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내호아(來護兒)는 강회(江淮)에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에 떠서(浮海) 수륙병진(물과 육지로 쳐들어 옴)하고 공부상서 우문개(宇文愷)와 소부감 하조(何稠) 등은 요동에서 부교를 만들어 요동성을 포위하고(進圍)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에 출하고 좌익위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출하여 제군이 압록강(鴨綠江) 서쪽에 모일새,</p>	<p>左翊衛大將軍宇文述, 出扶餘道, 右翊衛大將軍于中文, 出樂浪道, 與九軍至鴨綠水. (제44권 을지문덕편) 左翊衛大將軍來護兒 帥江淮水軍 舳艫數百里 浮海先進入自泃水 (중략) 帝命工部尙書宇文愷, 造浮橋三道於遼水西岸 (중략) 進圍遼東城. (중략) 遼東數出戰不利, 乃嬰城固守. (제20권 영양왕편)</p>
<p>×</p>	<p>술 등의 병사가 노하회진(瀘河懷遠) 두 진으로부터 그 인마(사람과 말)에게 각각 백일 양식을 주고 또 방패, 갑옷, 창과 옷감, 무기, 화막(火幕)을 지급하니 각 사람마다 지고 가야 할 중량이 삼백여 근이라.</p>	<p>述等兵自瀘河懷遠二鎮, 人馬皆給百日糧, 又給排甲槍稍并衣資戎具火幕, 人別三石已上, (제20권 영양왕편)</p>
<p>×</p>	<p>사람이 능히 들지 못하거늘 술(우문술)이 오히려 명령하여 이르기를 유기(遺棄)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하니 군졸이 다 장막 아래에서 구덩이를 파서 군량을 파묻으니 고로 길 중간에 이르러 양식이 다하거늘(그치거늘)</p>	<p>重莫能勝致, 下令軍中遺棄米粟者斬, 士卒皆於幕下, 掘坑埋之, 纔行及中路, 糧已將盡. (제20권 영양왕편)</p>

<p>영양왕이 을지문덕을 보내어 그 진영에 나가 거짓 행복하니 그 허실을 보기 위함이라. 그 때에 우중문이 수제의 밀지를 받았는데 만약 고구려 왕과 을지문덕이 온다면 반드시 그를 잡아두라고 한지라. 중문이 그를 잡아두려 하니 위무사, 상서우승 유사룡이 굳이 말려서 그만 을지문덕을 돌아가게 하니 중문이 곧 그것을 후회하여 사람을 보내 문덕에게 말하기를 다시 어떤 말을 할 것이 있으니 되돌아오라 하되 문덕이 돌아보지 않고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가니 수나라의 장수가 문덕을 추격했더라.</p>	<p>문덕이 수의 진영에 들어가 허실(虛實)을 탐색하니 이 때에 수의 장군 우문중은 수제 광(廣)의 밀지를 받아 내자(을지문덕)를 사로잡고자 하는지라. 문덕이 감언으로 달래어 피고 돌아오더니 얼마 안 있어(잠깐 후에) 중문이 후회하여 문덕을 끌어들이려 하거늘 문덕이 듣지 않고 압수(鴨水)를 건너니 중문이 술(우문술) 등으로 더불어 문덕을 잃고 매우 두려워하여 곧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어 문덕을 쫓았거늘</p>	<p>王遣大臣乙支文德 詣其營詐降 實欲觀虛實 于仲文先奉密旨 若遇王及文德來者 必擒之 仲文將執之 尙書右丞劉士龍 爲慰撫使 固止之 仲文遂聽 文德還 旣而悔之 遣人給文德曰 更欲有言 可復來 文德不顧 濟鴨綠水而去 (중략) 與諸將 渡水追文德(제20권 영양왕편)</p>
<p>문덕이 수나라 군의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피로하게 하고자 하여 매번 전투 때마다 도주하니 수나라 장수가 하루 동안에 7번 싸워 모두 이긴지라. 이미 여러 번 이긴 것을 믿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살수를 건너 평양성까지 30리되는 지점에서 산에 의지하여 진을 쳤거늘,</p>	<p>문덕이 수나라 군의 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피폐하게 하고자 하여 매번 싸울 때마다 번번이 달아나서 하루 사이에 일곱 번 싸움을 모두 패하니 우문술 등이 여러 차례 이기는 것을 믿고 동으로 살수를 건너니 평양과 상거가 삼십 리라.</p>	<p>文德見述軍士有饑色 故欲疲之 每戰輒走 述一日之中 七戰皆捷 旣恃驕勝 又逼群議 於是遂進東濟薩水 去平壤城三十里 因山爲營(제20권 영양왕편)</p>
<p>문덕이 중문에게 시를 지어 보내어 말하기를 신통스러운 계책은 천문을 뚫었고, 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했도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할 줄 알아 그만두라 말하시오 하니</p>	<p>문덕이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보내어 말하기를 신통스러운 계책은 천문을 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궁구하도다.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죽할 줄 알아 그만두기를 바라나이다 하니</p>	<p>文德遣仲文詩曰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제44권 을지문덕편)</p>
<p>이는 아동(我東)의 오연시의 시조라.</p>	<p>(아환의 오연시가 시작이 문덕이다)</p>	<p>×</p>
<p>×</p>	<p>중문이 답서로 행복하기를 깨우치거늘</p>	<p>仲文答書諭之 (제44권 을지문덕편)</p>
<p>문덕이 다시 사자를 보내어 거짓 행복하고, 말하기를 만약 군사를 돌려서 가면 왕을 모시고 제의 행재소에 가서 직접 뵈겠다 한데</p>	<p>문덕이 또 사신을 보내어 거짓으로 행복한데,</p>	<p>文德復遣使詐降 請於述曰 若旋師者 當奉王 朝行在所(제20권 영양왕편)</p>

<p>수나라 장수가 병사들이 피로하고 고달파하는 것을 보고 더 싸울 수 없음이오 또 평양성이 견고하여 함락시키기 어려움이라. 마침내 군이 돌아갈새, 방진(方陣)으로 편성하여 행군하거늘 문덕이 군사를 내어 습격하니</p>	<p>증문과 술 등이 그 병사들이 피폐하여 다시 전투하기 어렵고 또 평양이 견고하고 험하여 당장 함락시키지 못할지라. 곧 군사를 되돌려(班師) 방형의 진을 치고 가거늘 문덕이 출병하여 사면으로 습격하니</p>	<p>述見士卒疲弊 不可復戰 又平壤城險固 度難猝拔 遂因其詐而還 述等爲方陣而行 我軍四面鈔擊 述等且戰且行(제20권 영양왕편)</p>
<p>살수에 이르러 수나라 병사들이 반쯤 건넜더라. 고구려군이 그 후미를 공격하여 장군 신세웅이 전사하니 여러 군들이 함께 무너지고 장수와 군사가 달아나면서 돌아오니 밤낮 하루 동안에 압록강에 도달하니 450리를 갔더라.</p>	<p>잠깐 싸우고 잠깐 후퇴하다가 살수(薩水)에 이르러서는 수나라 군사의 반쯤 건넜고 있는 와중에 그 끝을 공격하니 그 후 군위장군 신세웅은 전사하고 제군이 모두 무너져(패하여) 수의 장사가 급히 달아날새 밤낮 하루 동안에 압록강에 도착하니 무릇 사백오십 리요,</p>	<p>至薩水 軍半濟 我軍自後擊其後軍 右屯衛將軍辛世雄戰死 於是 諸軍俱潰 不可禁止 將士奔還 一日一夜 至鴨綠水 行四百五十里(제20권 영양왕편)</p>
<p>내호아도 또한 고구려군이 유인한 바 되어 크게 패하니 겨우 몸만 빠져나왔더라. 처음에 요하를 건넜을 때에는 무릇 일백만오천 명이더니 요동으로 되돌아간 자는 다만 이천칠백 명이었다. 수만에 달하는 군량과 군사 기재들이 탕실되었다.</p>	<p>내호아도 또한 고구려 병사에게 이끌리어 대패하였더라. 처음에 수나라 군사가 요하를 건넌 자가 일백만오천 명이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생존이 겨우 이천칠백인이오, 군량과 군사 기재들의 탕실이 수만으로 헤아릴지라.</p>	<p>來護兒聞述等敗 亦引還 (중략) 初 九軍度遼 凡三十萬五千 及還至遼東城 唯二千七百人 資儲器械巨萬計(제20권 영양왕편)</p>
<p>후에 나라 사람이 평양에 사당을 짓고 문덕을 제사하여 이르기를 忠武祠라 하고 지금 평양에 돈(頓) 씨가 그 후손이요 석다산 아래에 세연지(洗硯池)가 있으니 곧 공의 수학하던 곳이라 말하더라.</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수제가 크게 노하여 술 등을 쇠사슬로 묶어 데려가더니</p>	<p>帝大怒 鎖繫述等 癸卯引還(제20권 영양왕편)</p>
<p style="text-align: center;">×</p>	<p>필경 수나라가 이 역을 인하여 국력이 피폐하고 무리들이(군중, 군웅들이) 봉기하다가 수제는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니라.</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論曰(논왈) : 사가가 논한다 煬帝遼東之役(양제요동지역) : 양제(煬帝)가 요동 전쟁에</p>

		<p>出師之盛(출사지성) : 보낸 군대는 前古未之有也(전고미지유야) : 이전에 유례없이 많았다. 高句麗一偏方小國(고구려일편방소국) : 고구려는 한 귀퉁이의 작은 나라로서 而能拒之(이능거지) : 능히 이를 막아내어 不唯自保而已(불유자보이이) : 스스로를 보전하였을 뿐 아니라, 滅其軍幾盡者(멸기군기진자) : 그 군사를 거의 다 섬멸한 것이었다. 文德一人之力也(문덕일인지력야) : 을지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傳曰(전왈) : 경전에 이르기를 不有君子(불유군자) : “군자가 있지 않으면 其能國乎(기능국호) : 어찌 능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으랴” 하였는데, 信哉(신재) : 참으로 옳은 말이다. (제44권 을지문덕)</p>
--	--	---

1) 독자 전략에 따른 서사 활용

먼저 『서우』에 실린 「을지문덕전」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우』에 실린 「을지문덕전」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로부터 시작하여 장소로 끝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기본 참고 자료였던 『삼국사기』나 『호남학보』의 「을지문덕」에는 살펴볼 수 없는 부분이다.

乙支文德은 平壤郡 石多山의 人이니 沈毅有智略호야 高句麗 嬰陽王朝의 大臣이라.(중략)

後에 國人이 建祠於 平壤호야 以祀文德호니 曰 忠武祠라 호고 今 平壤

에 頓氏가 其遺裔요 石多山下에 洗硯池가 有하니 卽公의 修學호든 處라 云호더라¹⁵⁾

을지문덕은 평양군 석다산(石多山)의 사람이니 침착하고 굳세며 지력이 있으니 고구려 영양왕조의 대신이라.(중략)

후에 나라 사람이 평양에 사당을 짓고 문덕을 제사하여 이르기를 충무사(忠武祠)라 하고 지금 평양에 돈(頓) 씨가 그 후손이요 석다산 아래에 세연지(洗硯池)가 있으니 곧 공의 수학하던 곳이라 말하더라.

『서우』에 실린 『을지문덕전』에서는 위의 예시처럼 을지문덕의 출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유적지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서우』에는 〈아동고사(我東古事)〉라는 표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실리고 있는데, 이는 전설이나 유래가 담긴 장소 또는 고적, 일화 등을 소개하는 글이다. 따라서 〈인물고〉의 『을지문덕전』에서도 이러한 〈아동고사〉처럼 유래가 담긴 장소나 고적 역시 언급되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석다산에서 더 나아가 세연지라는 뜻은 을지문덕이 수학하던 곳이라는 것까지 덧붙이고 있다. 유적지와 유래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가볼 수 있는 곳,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를 과거의 역사적 상황에 대입함으로써 독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흥미 유발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래 장소나 고적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평양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돈(頓) 씨가 바로 을지문덕의 후손이라고 설명한 것은 을지문덕의 후세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고, 그 핏줄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평양 충무사에서 을지문덕의 공헌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 역시 과거의 을지문덕의 용맹함과 충성을 현재

15) 〈인물고〉, 『을지문덕전』, 『서우』 2호, 1907.3.1., 36-37면.

의 우리가 배워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재성의 강조를 통해서 『서우』의 독자들이 배워가야 할 역사를 문학적 기법인 ‘수미상관법’을 활용하여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석다산으로 시작하여, 석다산으로 끝맺음으로써 당대의 독자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와 닿게 하면서 을지문덕이 수학했던 세연지 못까지 상기시켜 역사를 문학적으로 현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文德이 隋軍의 飢色이 有함을 見호고 欲引而疲之호야 每戰輒走호니 隋將이 一日之中에 七戰皆捷이라 恃其驍勝호고 東濟薩水호야 去平壤三十里에 因山爲營이어늘 文德이 遣仲文詩曰神策究天文이오 妙算窮地理라 戰勝功旣高호니 知足願云止라 호니 此는 我東五言詩의 祖라¹⁷⁾

문덕이 수나라 군의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피로하게 하고자 하여 매번 전투 때마다 도주하니 수나라 장수가 하루 동안에 7번 싸워 모두 이긴지라. 이미 여러 번 이긴 것을 믿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살수를 건너 평양성까지 30리 되는 지점에서 산에 의지하여 진을 쳤거늘, 문덕이 중문에게 시를 지어 보내어 말하기를 신통스러운 계책은 천문을 꿰었고, 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했도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놓아졌으니 만족할 줄 알아 그만두라 말하시오 하니 이는 아동(我東)의 오언시의 시조라.

『서우』에 실린 「을지문덕전」에는 『삼국사기』에 소개된 여러 사건들 중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수나라 군사들의 에피소드는 삭제되고, 줄여서 서술한 반면,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에게 보낸 에피소드와 시는 매우 상

16) 사실 장소로부터 시작하여 장소로 끝맺는 것은 당대 단행 전(傳) 양식의 특징이기도 했다. 유래 장소나 고적을 언급하는 것은 전(傳) 작품이 ‘사실성’의 증거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라 하더라도, 이러한 전 양식의 ‘사실성’은 이 전 양식을 읽는 독자층에게는 현실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7) 「을지문덕전」, 『서우』, 위의 책, 36면.

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할 『호남학보』의 「을지문덕」에서도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此는 我東五言詩의 祖라”라고 설명한 부분은 역사 속에서 문학의 원류를 찾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¹⁸⁾ 또한 이는 편집자 혹은 저자인 박은식이 『삼국사기』의 내용 중 『서우』의 독자들에게 읽히고 싶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문학에 대한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주체성은 바로 유학을 공부한 독자층, 즉 청년 독자층을 향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힘을 강조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조하여 청년 독자층 스스로 그러한 내면의 힘을 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삼국사기』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주체의식은 『호남학보』의 「을지문덕」에서도 계승되고 있다.¹⁹⁾

『호남학보』 창간호에 실린 「을지문덕」의 첫 머리에는 앞서 『서우』에는 보이지 않았던 홍양호의 『해동명장전』이 언급되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국난을 맞아 외세에 저항한 민족의 영웅들을 정리하여 실었다는 『해동명장전』²⁰⁾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을 은연 중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九道로 分_호야 來寇_호니 旌旗가 九百六十里에 連亘_호고 또 左翊衛大將來護兒는 江淮에 水軍를 率_호고 浮海_호야 水陸并進_호고 工部尙書 宇文愷와 小府監 何稠 等은 遼東에서 浮橋을 造_호야 遼東城을 圍進_호고 大將軍 宇文述은 扶餘道에 出_호고 右翊衛大將軍 于仲文은 樂浪道로 出_호야 諸軍이 鴨綠江 西에 會_호시 述 等의 兵이 瀘河懷遠 二鎮으로부터 其人

18) 전은경,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화 과정」, 앞의 글, 28면 참조.

19) 『호남학보』 제1호에 실린 「을지문덕」에도 사건 전개 가운데 괄호로 표시하여 “(我韓五言詩가 始文德)아한의 오언시가 시작이 문덕이다”(『호남학보』 제1호, 1908.6.25., 49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서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천안문화대전, http://cheon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eonan&dataType=01&contents_id=GC04500800

馬의게 各各 百日糧을 給予하고 또 排甲鎗稍衣資戎具火幕 等を 給하니 每人의 負擔하는 重兩이 三百餘斤이라. 人이 能히 舉치 못하거날 述이 오히려 下令曰 遺棄者는 斬하리라 하니 士卒이 다 幕下에서 坑塹을 掘야 粟米을 埋하니 故로 中路에 至하야 糧餉이 盡하거날²¹⁾

9도로 나누어 도적이 침범해오니(來寇내구) 정기(旌旗)가 구백육십리에 운항하고 또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내호아(來護兒)는 강회(江淮)에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에 떠서(浮海) 수륙병진(물과 육지로 쳐들어옴)하고 공부상서 우문개(宇文愷)와 소부감 하조(何稠) 등은 요동에서 부교를 만들어 요동성을 포위하고(進圍)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에 출하고 좌익위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출하여 제군이 압록강(鴨綠江) 서쪽에 모일새, 술 등의 병사가 노하회진(瀾河懷遠) 두 진으로부터 그 인마(사람과 말)에게 각각 백일 양식을 주고 또 방패, 갑옷, 창과 옷감, 무기, 화막(火幕)을 지급하니 각 사람마다 지고 가야 할 중량이 삼백여 근이라. 사람이 능히 들지 못하거늘 술(우문술)이 오히려 명령하여 이르기를 유기(遺棄)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하니 군졸이 다 장막 아래에서 구덩이를 파서 군량을 파묻으니 고로 길 중간에 이르러 양식이 다하거늘

『호남학보』에 실린 「을지문덕」에서는 에피소드를 강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서우』에는 없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위에 제시한 예시 중 밑줄 친 부분이다. 수의 엄청난 병사들이 고구려를 침범해왔을 때의 상황은 『서우』와 『호남학보』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호남학보』에는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 즉 패착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즉 수나라 장군들이 군사들에게 백 일 양식과 방패, 갑옷, 무기, 화막을 지급하여 각 사람들이 지고 가야 할 중량이 삼백여 근이 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무거

21) 〈名人言行〉「乙支文德」, 『호남학보』 제1호, 1908.6.25., 48면.

은 짐을 사람들이 능히 들지 못하지만, 우문술 등의 장군은 오히려 유기하는 자들의 목을 베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한다. 그러나 군졸들은 이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장막 아래 구덩이를 파서 군량을 파묻게 되고, 길 중간에 이르러 결국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서술은 『서우』에는 없고, 『호남학보』에만 있는 것이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를 발췌하고 소개하여 설명하는 것은 각 학회 잡지 편집자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에는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혹은 잡지 편집자들이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서우』에서는 을지문덕과 고구려 군인들의 용맹함과 명철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호남학보』에서는 수나라 군대의 무지함과 패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나라 군대의 지휘부, 우문술 등으로 대표되는 장수들이 전체 전쟁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병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압박만 가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다.

隋帝가大怒호야 述 등을 鎖繫引還호더니 畢竟 隋國이 此 役을 因호야 國力이 疲弊호고 群雄이 蜂起호다가 隋帝는 被弑호고 國이 亡호니라.²²⁾

수제가 크게 노하여 술 등을 쇠사슬로 묶어 데려가더니 필경 수나라가 이 역을 인하여 국력이 피폐하고 군중들이 봉기하다가 수제는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니라.

앞서 『서우』의 경우, 수나라 군대의 패착은 모두 생략되어 있고, 전쟁과 같은 사건 전개 부분을 강화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수나라 측의 서신이나, 수나라 장수의 급한 마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22) 『을지문덕』, 『호남학보』, 앞의 책, 49면.

한다. 그런데 『호남학보』에 실린 「을지문덕」은 이와 반대로 진행된다. 『서우』의 경우와는 반대로 『호남학보』에서는 수나라 군사들에게 짐을 지우는 장면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과 같은 사건 전개 부분은 단순하게 약화시키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에 더하여 『서우』나 『삼국사기』에는 서술되고 있지 않은 수나라의 멸망을 위의 예시처럼 덧붙이고 있다. 고구려와의 전쟁이 수의 멸망과 직결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무리한 원정과 이에 대한 수나라 백성들의 봉기로 수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 당대 소학교 교과서였던 『유년 필독』의 영향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第十三課 乙支文德 一

을 지 문 덕 고 구 려 일 천 이 백 구 십 오 년 전 지 나 슈
 乙支文德은 高句麗대신이라 一千二百九十五年前에 支那의 隋나
 양 광 기 구 벽 육 십 리
 라, 인군 楊廣이, 와, 치거늘 旗가 九百六十里에, 췌쳤고, 북소리는 서
 문 덕 리
 로, 들니는지라 文德이, 나아가, 막을시, 거짓 敗호야, 일곱 번 싸움에,
 슈 안 주 청 천 강 평 양
 일곱 번, 다라느니 隋나라, 군스가 安州淸川江을, 건너 平壤과, 상거가
 삼 십 리
 三十里뿐, 이오이다

第十四課 乙支文德 二

문 덕 스 면 청 천 강
 文德이, 그 피곤한 것을, 보고 四面으로, 치다가 淸川江에, 다다라는,
 반 파 슈
 그 半쯤, 건널 췌에, 뒤를 쳐서, 크게 破호니 隋나라, 군스가, 크게, 훗터
 일 일 일 야 압 북 강 리 수 스 벽 오 십 리
 저 一日, 一夜 동안에 鴨綠江으로, 도망호니, 그 里數가 四百五十里오
 이다

第十五課 乙支文德 三

슈 일 백 이 십 만 명 요 동
 隋나라 군수가, 처음에, 나오기는 一百二十萬 名이오, 그 遼東씨에,
 자 일 백 만 오 천 자 이 천 칠
 드러온 者가 一百萬五千이, 되더니, 그 사라, 도라간 者는, 겨오 二千七
 백 명
 百 名이오이다
 슈 인 군 양 광 범
 이에 隋나라 人君楊廣이, 크게, 무서워하야, 다시 犯치, 못하고, 이 쓰
 나라 힘 망 당
 힘에 國力이, 꺾어하야, 나라이 亡하고 唐나라가, 되얏는이다²³⁾

『유년필독』은 번역가이자 학부 관원이었던 현채(玄采)가 출간한 소학교 교과서였다. 이 책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 4권 2책으로 편찬된 소학교 2년, 즉 4학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모두 132과로 편제된 교과서”로 매 권마다 33과의 단원으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본문 내용은 국한문 혼용이면서 한글과 한자를 배열하고, 한자 오른쪽 위에는 루비 방식으로 한글을 적어 두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었다.²⁴⁾

또한 이 『유년필독』을 저술한 현채는 『호남학보』 제5호(1908.10.25.)에서 마지막호인 제9호(1909.3.25.)까지 『국가학』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었다. 즉 『호남학보』의 〈명인언행〉이 실리고 있던 때에 이기(李沂)가 연재하던 『국가학』 글을 현채가 이어서 게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채가 『호남학보』의 편집자인 이기와 친밀했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호남학보』 창간호에 〈명인언행〉이 실렸을 때, “幼年必讀書抄”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유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독서물의 초록본이라 할 수 있으며, 유소년들이 이를 읽으며 베껴 쓰면서

23) 편집경 발행 현채, 『幼年必讀書卷一』, 휘문관, 1907.5.5., 16~21면.((『유년필독 원전』, 이정찬 편역, 『유년필독』, 도서출판 경진, 2012)

24) 이종국, 「교과서 출판인 백당 현채의 출판 활동에 대한 연구」 『유년필독』 출판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36(1), 한국출판학회, 2010.6.15., 88면 참조.

익히도록 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는 『유년필독』이라는 책을 베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유년필독』에 실린 「을지문덕」편을 보면, 위에 실린 것과 같이 총 3과로 나누어 있으며, 내용도 매우 간략화되어 있었다. 즉 『유년필독』을 그대로 베껴서 〈명인언행〉의 글을 연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년필독』의 내용이 『호남학보』의 〈명인언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위에 예시로 제시한 『유년필독』의 제15과 「을지문덕」 3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수나라 임금 양광이 크게 무서워하여 (고구려를) 다시 침범하지 못하고, 이 싸움에 나라 힘이 피폐하여 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되었느니라.”로 표현되어 있다. 즉 고구려의 용맹함에 수나라가 겁을 먹었으며, 이 때문에 수나라가 피폐해져서 결국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로 변화하는 부분, 또 그 당대 강국이었던 수나라가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멸망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호남학보』에 실린 「을지문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 독자 전략에 따른 문체적 변이

앞서 독자 전략에 따라 서사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서사적 장치 외에 문체에서도 잡지에 따라 변이가 나타난다. 근대계몽기 역사·전기 서사물들은 애국과 계몽을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물로부터 잡지 독자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연재되면서, 잡지 편집진들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들의 수준에 맞게 문체도 변형해나갔다.

(가) 隋開皇中, 煬帝下詔征高句麗. (『삼국사기』 제44권 을지문덕편)
左十二軍, 出鏤方長岑溟海蓋馬建安南蘇遼東玄菟扶餘朝鮮沃沮樂浪等

右十二軍, 出犂磔含資渾彌臨屯候城提奚踏頓肅愼碣石東夷帶方襄平等道, 絡驛引途, 摠集平壤, 凡一百十三萬三千八百人, 號二百萬. 其餽輸者倍之. (『삼국사기』 제20권 영양왕편)

수나라 개황 연간에 양제(煬帝)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좌 12군은 누방·장잠·명해·개마·건안·남소·요동·현토·부여·조선·옥저·낙랑 방면으로 진군할 것이요, 우 12군은 점선·함자·혼미·임둔·후성·제해·답돈·숙신·갈석·동이·대방·양평 방면으로 진군한다. 진군하며 서로 연결하여 모두 평양에서 모이도록 하였다. 군사의 총수는 1백13만 3천8백 명이었는데, 부르기를 이백만이라 하였다. 군량수송을 맡은 자의 수는 배가 되었다.

(나) 支那 隋煬帝大業 八年에 高句麗를 伐호시 二十四軍을 左右道로 分호야 出호니 凡 一百十三萬 三千八百人인디 號를 二百萬이라 호고 饋輸者 | 倍之라. (『서우』)²⁵⁾

지나 수 양제 대업 8년에 고구려를 치러 할새, 24군을 좌우도로 나누어 나오니 무릇 일백십삼만 삼천팔백 인인데 號를 이백만이라 하고 군량수송을 맡은 자(饋輸者)가 그 갑절이라.

(다) 屢次 隋의 邊境을 征伐호얏더니 距今一千二百九十五年 前에 隋帝 楊廣이 兵士 一百十三萬 三千八百人을 發호야 號曰 二百萬이오 糧餉과 軍械를 輸運호는 者 | 또 百餘萬이라. (『호남학보』, 『을지문덕』)²⁶⁾

누차 수(隋)의 변경을 정벌하였더니 거금(거슬러 올라가) 천이백구십오년(1295년) 전에 수 황제 양광(楊廣)이 병사 백십삼만 삼천팔백인을 발하여 號曰 二百萬이라. 군량미와 각종 무기를 실어 나르는(輸運) 자가 또 백여만이라.

25) 『을지문덕전』, 『서우』 제2호, 1907.1.1., 36면.

26) 『을지문덕』, 『호남학보』 제1호, 1908.6.25., 47-48면.

(가)는 『삼국사기』, (나)는 『서우』, (다)는 『호남학보』에 실린 을지문덕 관련 글이다. 완전히 같은 내용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수의 양체가 고구려를 정벌하러 오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내용 부분을 문체별로 비교해 보면, 각 글의 목적과 독자 지향에 따라 보다 선명하게 문체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다. (가)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로, 한문체로 되어 있다. 이 한문체의 『삼국사기』가 (나)의 『서우』에서는 어느 정도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삼국사기』에서 “其餽輸者倍之”가 『서우』에서는 “饋輸者 | 倍之라.”로 바뀌어 구절 방식으로 해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左右道로 分하야 出하니”로 표현하여 좀더 한국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다)의 『호남학보』에서는 구절 방식으로 해체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어 방식으로 해체한다. “糧餉과 軍械를 輸運하는 者 | 또 百餘萬이라.”라고 하여 “饋輸者”를 보다 상세하게 단어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한다. 즉 군량미와 각종 무기 같은 병기를 실어나르는 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 左翊衛大將軍宇文述 出扶餘道 右翊衛大將軍于中文 出樂浪道 (중략) 左翊衛大將軍來護兒 帥江淮水軍 舳艫數百里 浮海先進入自涇水 (중략) 帝命工部尚書宇文愷 造浮橋三道於遼水西岸 (중략) 進圍遼東城 (중략) 遼東數出戰不利 乃嬰城固守. (제20권 영양왕편)

좌익위(左翊衛) 대장군 우문술(宇文述)은 부여로 출동하고,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于中文)은 낙랑으로 출동하였다. (중략) 대장군 내호아(來護兒)는 강희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를 통하여 패강으로 들어오니 수륙병진하였다. 공부 상서 우문개(宇文愷)와 소부감(少府監) 하조(何稠) 등은 요수에 부교를 만들어 요동성을 둘러싸며 나아가니 요동이 썩하여 출전하기에 이롭지 아니하여 이에 성을 둘러싸고 굳게 방어하였다.

(마) 左翊衛 大將軍 宇文述은 出扶餘道하고 右翊衛 大將軍 于中文은 出樂浪道하야 與九軍으로 期會於鴨綠江하고 又 大將軍 來護兒는 江淮水

軍을 率ᄃᆞ고 浮海先入溟江ᄃᆞ야 水陸 並進ᄃᆞᄂ시 工部 尙書 宇文愷와 少府監 何稠等은 造浮橋於遼水ᄃᆞ야 進圍遼東城ᄃᆞ니 遼東이 嬰城固守라(『서우』, 「을지문덕전」)²⁷⁾

좌익위(左翊衛) 대장군 우문술(宇文述)은 부여로 출동하고, 우익위 대장군 우중문(于中文)은 낙랑으로 출동하고, 아홉 군(九軍)과 더불어 압록강에서 모이도록 하고 또 대장군 내호아(來護兒)는 강희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를 통하여 패강으로 들어오니 수륙 병진할새 공부 상서 우문개(宇文愷)와 소부감(少府監) 하조(何稠) 등은 요수에 부교를 만들어 요동성을 둘러싸며 나아가니 요동이 성을 둘러싸고 굳게 방어하였다.

(마) 九道로 分ᄃᆞ야 來寇ᄃᆞ니 旌旗가 九百六十里에 連亘ᄃᆞ고 또 左翊衛大將來護兒는 江淮에 水軍을 率ᄃᆞ고 浮海ᄃᆞ야 水陸并進ᄃᆞ고 工部尙書 宇文愷와 少府監 何稠 等은 遼東에서 浮橋을 造ᄃᆞ야 遼東城을 進圍ᄃᆞ고 大將軍 宇文述은 扶餘道에 出ᄃᆞ고 右翊衛大將軍 于仲文은 樂浪道로 出ᄃᆞ야 諸軍이 鴨綠江 西에 會ᄃᆞᄂ시(『호남학보』, 「을지문덕」)²⁸⁾

9도로 나누어 도적이 침범해오니 정기(旌旗)가 구백육십리에 운항하고 또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내호아(來護兒)는 강희(江淮)에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에 떠서(浮海) 수륙병진하고 공부상서 우문개(宇文愷)와 소부감 하조(何稠) 등은 요동에서 부교를 만들어 요동성을 포위하고(進圍) 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에 출하고 좌익위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출하여 제군이 압록강(鴨綠江) 서쪽에 모일새,

위의 예시는 우문술과 우중문이 고구려로 쳐들어오는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라)는 『삼국사기』, (마)는 『서우』, (바)는 『호남학보』에 나온 설명이다. 『삼국사기』에서 “左翊衛大將軍宇文述 出扶餘道 右翊衛大將軍于仲文 出樂浪道”라는 한문체는 『서우』에서 “左翊衛 大將軍 宇文述은 出

27) 「을지문덕전」, 『서우』 제2호, 1907.1.1., 36면.

28) 「을지문덕」, 『호남학보』 제1호, 1908.6.25., 48면.

扶餘道호고 右翊衛 大將軍 于中文은 出樂浪道호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거의 한문에 토만 달고 있는 현토한문체에 가깝다. ‘은’, ‘-호고’, ‘-호야’ 등의 토만 있을 뿐 한문체 그대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호남학보』에서는 “大將軍 宇文述은 扶餘道에 出호고 右翊衛大將軍 于中文은 樂浪道로 出호야”로 바뀌어 단어형으로 해체되고 있다. 즉 “出扶餘道”가 “扶餘道에 出호고”로 바뀌어 서술어인 ‘出’의 위치를 한국어의 순서대로 해체하고 있다. 또 “出樂浪道” 역시 “樂浪道로 出호야”로 서술어의 위치를 한국어 순서로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우』에서 “造浮橋於遼水호야 進圍遼東城호니”가 『호남학보』에서 浮橋을 造호야 遼東城을 進圍호고”로 해체되면서 한문체의 순서가 한국어 문체의 순서로 바뀌고 있다.

결국 이러한 면은 한문체에서 구절형 국한문체로, 다시 단어형 국한문체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이 세 저작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역사서 『삼국사기』가 각 잡지에서 역사 전기 서사물로 새롭게 정착되면서, 각 잡지 매체의 독자 정책에 맞추어 문체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우』의 경우 청년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한문을 아는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문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남학보』의 경우는 이러한 『서우』의 문체에서 한국어 방식으로 문체를 더욱 해체하여 좀더 유소년 독자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었다. 이는 『호남학보』의 〈명인언행〉에서 밝힌 바대로, “幼年必讀書抄”라는 언급처럼 유소년 독자층을 지향하면서 유소년들이 열심히 베껴 쓰면서 읽을 수 있도록 단어형 국한문체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근대계몽기에는 역사서로부터 역사 교재와 역사 전기 서사물로 변화되어 오면서 서사적 장치뿐만 아니라 문체적 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역사 전기 서사물이 탄생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이러한 서사 장치의 활용과 한국어 방식의 문체 해체는 결국 각 잡지의 독자 지향에 따라 연관되어 있기도 했다.

4. 근대계몽기 역사 전기 서사물이 근대문학에 끼친 영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계몽기 잡지에 실렸던 역사 전기 서사물은 그 잡지의 독자 전략에 따라 서사적인 면과 문체적인 면에서 변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변이들은 역사서에서 새로운 문학으로 이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근대계몽기는 국내 외의 인물들에 대한 역사 전기 문학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전기 단행본이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잡지에 실렸던 역사 전기 서사물들이 변화해오고 있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그 잡지 매체의 독자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역사서로부터 새로운 문학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역사 인식에 대한 변화 역시 추동해오고 있었다. 근대계몽기에는 과거 사관(史官)의 해석으로부터 근대적 변화의 기틀을 보여주는 의미 부여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

論曰：煬帝遼東之役，出師之盛，前古未之有也，高句麗一偏方小國，而能拒之，不唯自保而已，滅其軍幾盡者，文德一人之力也。『傳』曰：“不有君子，其能國乎。”信哉。(『삼국사기』 제44권 「乙支文德」)

저자의 견해 : 양제의 요동 전역은, 출동 병력이 과거 이전에 없을 만큼 거대하였다. 고구려가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로서 능히 이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군사를 거의 섬멸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경전(『춘추좌전』)에 이르기를 “군자가 없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믿을 만하다.

『서우』의 「을지문덕전」과 『호남학보』의 「을지문덕」 내용의 기저가 되었던 『삼국사기』의 「을지문덕」편을 보면, 위의 내용처럼 한 개인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고구려가 수나라를 섬멸할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영웅이었던 을지문덕 한 개인의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영웅에 의한 구원이라는 모티브는 고전 영웅 소설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이기도 하다.

(자) 後에 國人이 建祠於 平壤^하야 以祀文德^하니 曰 忠武祠라 ^하고 今 平壤에 頓氏가 其遺裔요 石多山下에 洗硯池가 有^하니 卽公의 修學^하든 處라 云^하더라²⁹⁾

후에 나라 사람이 평양에 사당을 짓고 문덕을 제사하여 이르기를 충무사(忠武祠)라 하고 지금 평양에 돈(頓) 씨가 그 후손이요 석다산 아래에 세연지(洗硯池)가 있으니 곧 공의 수학하던 곳이라 말하더라.

(차) 是夕之夢에 忠武祠故址를 尋往^하니 一大將이 長劔을 伏^하고 招余 而前曰爾가 高句麗의 霸業으로써 一個余乙支文德의 功으로 認하는가 不然^하다. 當時 高句麗의 民族은 天下에 最히 勁悍^하 民族이라 所以로 彼 楊廣의 百萬大衆이 水陸並進^하야 壓於境上^하도 全國人民이 毫不畏懼^하고 各自奮憤欲戰^하야 視大敵如無^하니 此는 余所以藉手成功者라 余가 數千精騎를 率^하고 敵의 百萬大衆을 追擊^하할 時에 無不以一當百^하았스니 非其民族之勁悍이면 能如是乎^아³⁰⁾

그 밤 꿈에 충무사 터를 찾아가니 한 대장군이 장검을 품고 나를 불러 앞에서 말하기를 네가 고구려의 패업으로써 일개 나 을지문덕의 공으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시 고구려의 민족은 천하에 극히 용맹한 민족이다. 그래서 저 양광(수나라 양제 양광)의 백만 대중이 수륙병진하여 국경으로 압박해 오는데 전국 인민이 털끝하나도 겁내지 않고 각자 분노를 떨치며 싸우자 하여 대적을 보고도 없는 듯이 여기니 이는 내가 손을 빌려 성공한 이유라. 내가 수천의 매우 날쌔고 용맹스러운 기병을 거느리고 적의 백만 대중을 추격할 때에 일당백의 용기를 갖지 않는 사람이

29) 〈인물고〉, 『을지문덕전』, 『서우』 2호, 1907.3.1, 37면.

30) 大痴子, 『몽배을지장군기』, 『서우』 16, 1908. 3.1, 26면.

없었으니 그 민족이 용맹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자)는 『서우』의 『을지문덕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삼국사기』에서 을지문덕의 영웅 의식을 강조하는 것처럼 후세 사람들이 을지문덕의 사당을 짓고 제사하며 기리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수미상관법을 활용한 서사이기도 하면서, 을지문덕의 영웅 의식을 강화하여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했다. 이러한 영웅 의식이 (차)에서 보여주는 을지문덕의 대사를 통해 다르게 변화하게 된다.

(차)는 역시 박은식이 『서우』에 실었던 『몽배을지장군기』로, 몽유록계의 서사물이다.³¹⁾ 『몽배을지장군기』에서는 (자)에서 보여주었던 을지문덕의 영웅 의식 즉 『삼국사기』의 영웅 사관에서 좀 더 근대적으로 변화한 세계관을 보여준다. (차)에서는 저자가 을지문덕의 사당인 평양 충무사를 방문했다가 꿈속에서 을지문덕을 만나게 되는데 살수대첩의 대업이 을지문덕 자신만의 공이 아니라 고구려 민족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한다.³²⁾ 즉 고전적인 특별한 한 사람만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영웅 의식에서 민족 전체의 힘으로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영웅에서 이름 없이 충성했던 각 한 사람에게로 중요도가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박은식은 『서우』에서 『을지문덕전』과 『몽배을지장군기』 등의 역사 전기 서사물을 통해서 개개인의 힘과 우리 내부의 힘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자층을 대상으로 우리 내부의 주체성과 내부의 힘을 육성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임을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을지문덕전』에서는

31) 『몽배을지장군기』에 대해서 류양선은 「몽배금태조」를 예비하고 있던 작품으로 설명하며, 문한별은 내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서사 양식으로 몽유 서사를 주목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류양선,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984.5, 112면; 문한별, 「근대전환기 학회지 수록 몽유 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4, 350-357면)

32) 전은경,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화 과정」, 앞의 글, 31면 참조.

‘현재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몽배을지장군기』에서는 평범한 인물들의 희생과 충성의 힘을 보여주며, 독자들을 각성시키고자 했다. 내부로부터의 힘을 발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교육이 『호남학보』에서는 좀 더 어린 유소년층에까지 내려오게 된다. 『서우』의 『을지문덕전』보다 『호남학보』의 『을지문덕』이 문체면에서 한문을 훨씬 더 해체하여 한국어식 어순으로 바꾸고 있으며, 단어 위주로만 한문을 활용하고 있다. 같은 애국 계몽 운동과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집중하는 독자층에 따라 학회 잡지는 역사 전기 서사물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유소년을 위한 쉬운 글쓰기는 서사 즉 이야기의 강화로도 이어졌다. 『호남학보』에서는 사건의 요약보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첨가되어 장면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술했던 수나라 군사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못해 목을 치겠다는 위협에도 땅에 파묻고 만다는 부분에 대한 서술은 『서우』에는 없었고, 『호남학보』에서 강화되었다. 이처럼 유소년층을 위한 좀 더 쉬운 글쓰기로, 에피소드 등의 이야기를 강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독자 대상을 유소년층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청년층에서 좀 더 분리되어 구분된 유소년층의 발견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학회 잡지의 독자 전략을 통해 실제 독자층을 좀 더 세분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독자에 대한 발견은 새로운 독자층인 유소년층의 발견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카) 大抵 高句麗는 褊小호 國이라. 然이나 强大호 隋國을 征伐호다가 畢竟 大兵이 臨境호얏스니 其 危殆호미 累卵과 如호거늘 公이 挺身獨行 호야 敵陣에 往來호기 無人境과 如호니 其 隋軍을 視호미 窺 小兒와 同 호고 또 七戰七走호되 敵으로 호야곰 我的 計策을 不知케 호니 其 謀略이 또 何호호노. 大抵 隋國의 于仲文字文述來護兒 等은 다 百戰壯士라. 隋文帝을 從호야 天下를 平定호얏스니 其 勇猛과 威勢가 古今을 睥睨호

겻거늘 공이 談笑雍容에 一卒을 不傷하고 數百萬 戰士를 一時 陷沒하야 倣類가 無케 하니 可謂 神人이라 世界에 其儔가 엇지 有호리오.³³⁾

대저 고구려는 협소한 나라이다. 그러나 강대한 수나라를 정벌하다가 필경 대병이 국경에서 대치하였으니 그 위태함이 포개놓은 알과 같았거늘, 공이 남보다 앞장서서 홀로 나아가서 적진에 왕래하기 무인경(無人境 :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과 같으니 그 수군을 지켜봄이 곧 어린아이와 동일하고 또 칠전칠주하되 적으로 하여금 나의 계책을 알지 못하게 하니 그 모략이 또 어떠한노. 대저 구국의 우중문, 우문술, 내호아 등은 다 백전 장사라. 수문제를 따라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 용맹과 위세가 고금을 노려보며 기세를 보이겠거늘 공이 온화하고 점잖은 태도로 담소함에 군사를 상하지 않고 수백만 전사를 일시 함몰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니 가위 신인(神人)이라. 세계에 그 짝할 자가 어찌 있으리오.

(카)는 『호남학보』에 실린 「을지문덕」의 마지막 부분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호남학보』의 「을지문덕」은 수의 멸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무리한 원정 전쟁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봉기로 멸망한 후 당나라가 들어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삼국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수 황제의 무능력함과 오관을 문제 삼고 있었다. 특히 『호남학보』에서는 그 당시 강국이었던 수나라가 패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카)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대 강국의 패착에 대한 평에서 더 나아가 당시 국제 관계에까지 세계관을 넓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을지문덕의 계책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개인의 힘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확대하여 우리 가운데에도 세계적인 인물이 존재한다는 자긍심을 보여준다. 즉 “세계에 그 짝할 자가” 있을 수 없는 “신인(神人)”이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양 나라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고구려의 힘을 보여주는 것과 동

33) 「을지문덕」, 『호남학보』 제1호, 앞의 글, 49-50면.

시에, 우리 내부에서 확대 발전시켜 세계성으로 확장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근대계몽기에는 세계 유수의 다양한 영웅적 인물들에 대한 전기물들이 번역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세계적 인물에 견줄 만한 인물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이 나약하지 않으며,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세계성으로까지 그 시야를 넓혀주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근대계몽기 학회 잡지에 게재된 역사 전기 서사물들은 교육과 계몽을 위해서 사용되면서도, 새로운 청년과 유소년 독자들을 발견해 내고 있다. 또한 이는 『서우』와 『호남학보』 잡지가 상정한 독자층 전략에 따라 서사의 초점 방향이 변이되고 있기도 하다. 『서우』가 내부로 시각이 초점화되어 있다면, 『호남학보』는 외부로 그 시각이 초점화되어 있다.

『서우』에서는 우리 내부의 힘과 주체성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내부의 역량을 믿도록 교육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을지문덕의 위대한 힘과, 또 을지문덕을 도와 나라를 지켜낸 이름 없는 고구려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설명했다. 이러한 서사의 강조를 통해 청년 독자층들이 자신의 내부의 힘을 믿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육성해내는 독자 전략을 펴하고 있었다.

『호남학보』에서는 외부를 초점화하여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 유소년들의 시각을 넓혀주고자 했다.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수나라의 패착과 실패를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다는 것을 유소년들에게 설명한다. 따라서 서사의 초점은 끊임없이 수나라의 실패와 문제점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서사적 전략은 유소년들이 세계관을 넓히고, 당대 국가들의 약육강식의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이러한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 우리 안에서도 세계와 나란히 견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피력했다.

이처럼 근대계몽기 잡지에 실린 역사 전기 서사물들은 특별한 영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교육을 받아 나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아’와 ‘개인’을 발견해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국이나 한 국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성으로까지 그 인식을 넓혀주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서사의 변화는 각 잡지가 상정하고 대상화한 독자층에 따라,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근대계몽기 역사 전기 서사물은 근대문학이 성립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며 근대문학을 추동해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5. 결론

근대계몽기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학회활동이 이루어지고 학회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학회지들이 설립되는데, 이 지역 학회지들은 학회지를 통해서 애국과 계몽을 실천하기 위해 문예면을 활용하였다. 그 가운데 역사 전기 서사물은 지역 독자층에게 애국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몽 문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역사 전기 서사물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 학회지의 특징과 독자층 전략에 따라 조금씩 변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을지문덕’을 활용한 역사 전기 서사물을 보면, 『서우』와 『호남학보』에 실리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지역 학회지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서우』의 경우는 실린 글의 절반이 넘는 경우가 단어형 국한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전기 서사물은 구절형 국한문체 유형이 많았다. 또한 문예면 전체로 보면 한문체와 구절형 국한문체가 문예면 전체 글의 2/3를 넘었다. 이는 이 역사 전기 서사물의 독자 대상이 한문에 익숙한 청년 독자층

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이에 반해 『호남학보』는 전체 실린 글의 문체 유형이 한문체와 단어형 국한문체가 비슷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역사 전기 서사물은 총 50편 모두 단어형 국한문체를 차지했다. 이는 『호남학보』가 독자층을 구분하며 각 독자층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 전기 서사물의 독자층은 상대적으로 한문에 덜 익숙한 유소년층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자 전략에 따라 『서우』와 『호남학보』는 역사 전기 서사물을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서우』는 독자 전략에 따른 서사 활용을 보면, 최초의 오언시 등의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또 수미상관법을 활용하여 그 지 역성을 대두시킨다. 문체적인 부분에서는 구절형 국한문체를 활용하여 한문에 익숙한 청년들을 계몽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호남학보』는 서사 활용에서 『서우』보다 에피소드를 강조했다. 이야기를 강조하고, 쉬운 내용들을 장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수제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호남학보』에 『국가학』을 연재 하며 활동하던 현채가 집필한 『유년필독』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문체 면에서는 단어형 국한문체로 해체하여 문장의 흐름을 한국어로 풀어 쓰고 있다. 이는 유소년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년필독서초(幼年必讀書抄)’라고 언급하여, 유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독서물의 초록본으로서 베껴 쓰면서 익히도록 했다. 그만큼 쉽게 풀어쓰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처럼 역사 전기 서사물은 근대계몽기 각 지역별 청년들과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역사 전기 서사물은 이전 역사서가 근대문학으로 이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전근대적인 영웅의식을 담은 역사서를 지금, 여기의 현재성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근대의 ‘개인’을 발견하며 청년들과 유소년층들을 계몽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유소년층들을 새롭게 발견해내었다. 결국

독자층에 맞는 서사를 활용하여, 우리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는 특별한 영웅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 가는 것임을 역설하기도 했고, 외부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관의 변환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서로부터 근대문학의 새로운 역사 문학으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 지역 학회지에 실린 다양한 역사 전기 서사물들이 존재함으로써, 역사 전기 서사물들은 그 변이의 과정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이의 과정은 지역의 각 학회지가 상정한 독자층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독자층, 즉 청년 독자층과 유소년 독자층을 발견해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문예를 창출하고자 하는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근대문학은 서서히 태동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서우』, 『호남학보』, 『기호홍학회월보』,
『幼年必讀卷一』(편집점 발행 현재, 휘문관, 1907.5.5.((유년필독 원전), 이정찬 편역,
『유년필독』, 도서출판 경진, 2012))

2. 논문 및 저서

권영신, 『한말 서우학회의 교육구국 활동』, 『교육문화연구』 1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
소, 2005, 61-72면.
김재영, 『『대한민보』의 문체 상황과 독자층에 대한 연구』, 『한국 근대문학과 신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저,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2006.
김진균, 「근대계몽기 해학 이기의 한문인식」,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 259-286면.
류양선,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984.5, 91-120면.
문한별, 「근대전환기 학회지의 서사체 투영 양상」 『서우』, 『서북학회월보』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2009.9, 431-456면.
문한별,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회, 2009.10, 183-210면.
문한별, 「근대전환기 학회지 수록 몽유 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46, 한국현대소설
학회, 2011.4, 339-361면.
변영로, 『한국근·현대문학사』, 명문당, 1991.
이경선, 「박은식의 역사·전기소설」, 『동아시아문화연구』 8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
구소, 1985, 321-341면.
이종국, 「교과서 출판인 백당 현재의 출판 활동에 대한 연구-『유년필독』 출판을 중심
으로」, 『한국출판학연구』 36(1), 한국출판학회, 2010.6, 75-104면.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전은경, 「근대계몽기 잡지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의 서사화 과정-『서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12, 5-40면.
전은경, 「근대계몽기 지역 학회지와 지역 문학의 근대적 태동」, 『어문학』 146, 한국어
문학회, 2019.12, 219-254면.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소명, 2013.

- 정충권, 『전통지식인이 바라본 근대계몽기의 교육과 문학·해학 이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33-59면.
-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의식 지향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조상우, 『해학 이기의 계몽사상과 해학적 글쓰기』, 『동양고전연구』 26, 동양고전학회, 2007, 7-35면.
- 홍인숙·정출헌, 『『대한자강회월보』의 운동성과 지향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353-380면.
- 『삼국사기』, 표점 교감본, 허성도 역, 한국사사료연구소, 한국 지식콘텐츠 사이트,
<http://www.krpia.c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천안문화대전,
http://cheon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eonan&dataType=01&contents_id=GC04500800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Readers of
the Magazine and the Historical Biography
Narrative i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EuljiMundeok

Jun, Eun-Kyung

A number of academic activities and journals poured out as part of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during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Among them, local academic societies were establish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hich used literary and artistic aspects to practice patriotism and enlightenment through academic journals. Among them, the prehistory of history has become an important enlightenment literary art that can promote patriotism among local readers. In addition, even the same historical biographical epic shows vari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academic journal and the reader's strategy. In particular, The magazine *Seowoo* is aimed at young people who are more familiar with Chinese characters, and The magazine, *Honamhakbo* is based on young people who are less familiar with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the prehistory of history was us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enlightenment for young people and boys in each region during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hese historical biographical narratives existed in the process of the transition of previous historical books to modern literature. Each academic journal reinterpreted history

books containing a pre-modern sense of heroism to the present here, and sought to enlighten young people and boys by discovering modern “individuals.” The magazine also stressed that by newly discovering the boys among them, history is not changed by a particular hero, but by an individual.

In this regard, various historical and biographical essays published in the local academic journals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historical books to the new historical literature of modern literature were present, thus capturing the process of variation.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has emerged as each local academic journal is considering a strategy for its readership. In this process, modern literature was slowly beginning to develop through experiments to discover new readers, young people readers and boys readers, and create new literary works for them.

Key words: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the magazine *Seowoo*, the magazine *Honamhakbo*, the Historical Biography Narrative, EuljiMundeok, readers, strategies for readers, history book, modern literature

투 고 일 : 2020년 8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3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